

 한국문화원 Korean Cultural Center Los Angeles		보 도 자 료		<i>다시,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</i>	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총2쪽	
배포일시	2025.06.09.	담당부서		영화/문화산업	
연락처	323-936-7141(x116)	담 당 자		Seonji Jang	

독립을 위한 한 발의 총성, 영화 <암살> 특별상영회 개최

- 주LA 한국문화원, 광복 80주년 기념 항일 영화 6편 순차 상영 중 -

- ▶ 행사명 : 광복 80주년 기념 ‘한국영화로 보는 광복 이야기’, 영화 <암살> 상영회
- ▶ 일 시 : 2025년 6월 18일(수), 18:30
- ▶ 장 소 : LA한국문화원 아리홀 (5505 Wilshire Blvd, LA, CA 90036)
- ▶ 주최/주관 : 주LA 한국문화원
- ▶ 행사/취재문의 : 장선지 실무관, 323-936-7141(x116)

주 LA 한국문화원(원장 이해돈)은 오는 6월 18일 오후 6시 30분, 문화원 아리홀에서 영화 <암살>(2015, 감독 최동훈)의 특별 상영회를 개최한다.

한국문화원은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‘한국영화로 보는 광복 이야기’ 영화 상영회 시리즈를 기획하였으며, 지난 3월 13일부터 시작해 11월 19일까지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항일독립 운동의 역사적 사건과 독립운동가의 활약상 등을 조명한 한국영화 6편을 상영한다.

이번에 상영하는 영화 <암살>은 1930년대 경성(서울)을 배경으로 친일파 처단을 위해 활약한 독립군 암살단의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풀어낸 작품이다.

2015 년 한국 개봉 당시 1,270 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대단한 성공을 거둔 영화 <암살>은 실존 인물과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상상과 허구(fiction)를 절묘하게 결합한 작품으로, 일제하에서 치열했던 항일 독립운동을 참신한 시각으로 담아내 진한 감동을 남겼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. 특히, 잘 알려지지 않았던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담대한 활약상을 뛰어난 연출과 액션으로 표현해 많은 관객들의 환호와 찬사를 받은 바 있다.

이해돈 한국문화원장은 ‘한국영화로 보는 광복 이야기’ 프로그램은 올해 광복 80 주년을 맞아, 우리 역사의 중요한 사건들과 인물들을 다시 한 번 기억하고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독립과 자유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자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다”라며 “영화를 통해 ‘대한독립’의 감동을 새롭게 느껴보길 권한다”고 전했다.

한국문화원은 6 월 상영회 이후 오는 11 월까지 ‘한국영화로 보는 광복 이야기’ 상영회에서 3 편의 영화를 더 상영한다. 8 월 20 일에는 항일투쟁 역사에 기록된 독립군의 첫 승리를 장엄하고 서사적인 스펙터클로 표현한 원신연 감독의 영화 <봉오동전투> (2019)를, 10 월 8 일에는 우리 말과 글 사용이 억압받던 일제 치하에서 우리말 사전을 만들기 위해 헌신하다 탄압당한 ‘조선어학회 사건’을 다룬 <말모이>(2019)가 차례로 관객들을 만난다.

특별 상영회의 마지막은 한국인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윤동주 시인 서거 80 주년을 기념하여, 11 월 19 일에 이준익 감독의 영화 <동주>(2016)가 장식할 예정이다. <동주>는 펜으로 불의한 세상과 직면했던 윤동주의 젊은 날의 고뇌와 번민, 독립에 대한 열정과 저항 정신을 흑백으로 잘 담아내고 있으며, 강하늘과 박정민 등이 열연한 영화로 잘 알려져 있다.

모든 영화 상영은 주 LA 한국문화원 아리홀에서 저녁 6 시 30 분에 진행되며, 한국문화원 웹사이트(www.kccla.org)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 관람이 가능하다. /끝/

(붙임 1) <한국영화로 본 광복이야기>, 영화 <암살> 포스터